

설탕값 상승으로 양봉업계 이중고

양봉업계는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양봉사료로 쓰이고 있는 설탕가격이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봉업계에 따르면 양봉사료로 쓰이는 식용설탕은 지난해 대비 약 70%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봉농가가 벌집 1통에서 꿀을 생산하는데 드는 설탕은 평균 40kg정도로 전업 양봉농가 4만3000호의 벌집 약 210만통으로 계산하면 약 8400만kg의 설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생산비의 30%를 차지하는 설탕값이 크게 오르면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양봉업계는 소·돼지·닭에는 사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업계는 기타축종으로 분리돼 소외받고 있다며 양봉산업의 사료에 해당하는 설탕값의 인상분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규철 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만 해도 15kg 설탕 한포당 8000원 정도하던 것이 70%가량 오른 1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생산비가 급등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다 시장상황 때문에 꿀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봉업은 이동이 많고 수송비 부담까지 농가가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유류비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nirvana@aflnews.co.kr)